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 신성중 편집인 : 우기전 편집국장 : 이종국

제3회 제4학기 목회자세미나 사회변혁과 교회성장

3월 6일 개강, 5월 8일까지 총 10주간 진행

충현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은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사회변혁과 교회성장"이라는 주제하에 3월 6일 오후 1시에 개강하여 5월 8일까지 총 10주간의 제3회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번 학기에서는 제1교시(오후 1시 ~ 2시 30분)에는 당회장 신성중 목사의 마태복음(하) 연구, 제2교시에는 사회변혁과 교회성장에 관한 여러 강사들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금번 학기의 강사는 이종표, 박종순, 나경일, 이용남, 박원기, 조용기, 정삼지, 정필도, 안종만 목사와 손봉호 교수이다.

교회는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 목회자들의 영성개발과 성장을 돕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을 개설하여 지난 1990년 가을에 제1학기를 시작한 이래 매년 봄과 가을 학기를 운영해 오고 있다.

내 학기마다 전국에서 모이는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강의를 듣고, 친교를 나누고, 목회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유익을 얻고 있다. 계속적

으로 참여하는 목회자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당회장 신성중 목사는 목회자들을 초대하면서 "교회가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으로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세미나에 참가하고자 하는 목회자는 3월 6일까지 교회 교육국(전화 552-8200 교 504, Fax 567-6073)에 신청하면 된다.

학습·세례·성찬식 3월 3(금), 5(주일)에 실시

금년들어 두번째 실시하는 학습·세례식이 오는 3월 3일(금) 오후 7시에 갈릴리홀에서 실시된다. 이번 학습·세례식을 위해 3월 2일(목) 오후 7시에 교육관 307호에서 예비교육과 문답이 있고 3월 5일(주일)에는 주일예배시 성찬식을 거행한다.

목회자세미나 일정표

시간 일자	제 1 교시 13:00 ~ 14:30	제 2 교시 14:50 ~ 16:20
3월 6일	성경강해 마태복음(하) 연구 신성중 목사 미국 댈러스대학교 철학박사 현, 충현교회 담임목사	목회자의 경건과 영성개발 이종표 목사 캘리포니아신대학원 목회학박사 현, 한신교회 담임목사
3월 13일		한국사회의 현실과 교회의 사명 박종순 목사 플로리다대학교 목회학박사 현, 충신교회 담임목사
3월 20일		사회 불화와 교회 성장 남경일 목사 플로리다대학교 목회학박사 현, 주안교회 담임목사
3월 27일		새신자 목회와 교회 성장 이용남 목사 ACTS 목회학박사 현, 장석교회 담임목사
4월 3일		교육의 혁신과 전망 박원기 목사 보스턴유니버시티 신학박사 현, 아대교회 설교
4월 10일		변화하는 사회와 목회 전략 조용기 목사 베다니성서대학 명예신학박사 현,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4월 17일		성령의 역사와 교회 성장 정삼지 목사 장신대학교 신학박사 현, 개성교회 담임목사
4월 24일		목회자의 리더쉽과 부흥 정필도 목사 리플트목회학박사과정 수료 현, 수영교회 담임목사
5월 1일		목회자의 설교 준비와 적용 안종만 목사 미국웨스턴신학교 신학박사 현, 대동침례교회 담임목사
5월 8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 윤리 손봉호 교수 화란자유대학 철학박사 현, 서울대 교수

금주의 교회행사

1. 청지기훈련 제3차 주간

2월 22일(수), 23일(목)
교구일꾼(서리집사 및 권찰 전원)
새가족위원회

계속되는 청지기훈련 제3차 주간. 금주에는 22일(수), 23일(목)에 교구일꾼과 새가족위원회의 훈련으로 모인다. 강사는 교구일꾼은 성봉환, 장차남 목사, 새가족위원회는 윤삼중 목사이다. 해당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집회시작 전에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 2월 20일(월) 오전 9시부터 3교구가 계속

지난 2월 6일 시작한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가 금주에는 2월 20일(월) 오전 9시에 3교구가 시작한다. 3교구는 3월 27일 오전 9시까지이다.

3. 교회학교 겨울 계절학교

영아·유아·초등·중등부 등
금주에 몰려

학년말 방학이 시작되면서 교회학교 겨울수련회가 일제히 열린다.

부서	일자	장소	강사
영아부	2.22~23	아멘홀	정연희
유아부	2.22~23	교212	계선화
유치부	2.22~24	교205,202	김정자
초등1부	2.22~24	교307	황정순
초등2부	2.22~24	교314	송향자
초등3부	2.22~24	교407	오인숙
초등4부	2.22~24	교414	윤인숙
초등5부	2.22~24	교514	김필수
초등6부	2.22~24	교507	한용관
중등1부	2.20~22	충현기도원	김희수
중등2부	2.21~23	충현기도원	장광국
중등3부	2.23~25	충현기도원	이홍성
청년2부	2.25~26	갈릴리홀	김정우
장년1부	2.18~19	교414	이한수
예배다부	2.20~22	충현기도원	이준우

찬양대에서 대원 특별 모집

매 찬양시마다 250명이 되도록

찬양위원회에서는 1995년도의 표어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로 정하고 여러모로 애쓰고 있다. 우선 예배시간에 양쪽 찬양대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약 250여명) 찬양드림을 목표로 찬양대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섬길 찬양대원을 보충하기로 하고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의 자격은 ① 음악적인 자질이 있는 성도, ② 음악을 전공한 성도, ③ 배우려는 태도와 주님께 헌신하려는 자

세를 가진 성도, ④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 교인으로 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마친 성도이다.

희망자는 각 찬양대의 사무국 접수창구(총무과)에 준비된 소정양식에 기록하여 사무국 접수창구(총무과)나 찬양위원회실(본당 106호/ 전화 552-8200 교 205)에 제출하면 된다.예배 찬양시간과 연습시간을 살펴보고 형편에 맞추어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찬양대별 찬양 담당 및 연습시간

구분	예배시간	주일 연습	평일 연습
주일1부/가브리엘	07:00-08:00	예배전후 1시간	(금) 19:00-21:00
주일2부/임마누엘	09:00-11:00	예배전후 1시간	(토) 16:30-18:30
주일3부/할렐루야	11:00-12:00	예배전후 1시간	(토) 17:00-19:00
주일4부/아멘	13:00-14:00	예배전후 1시간	(금) 19:00-21:00
주일영예예배부/시온	09:00-10:00	시작전 1시간	(토) 17:00-19:00
수요1부/호산나(여성)	11:00-12:00	(주) 16:00-17:00	시작전 1시간
수요2부/실로암	19:00-20:00		수요예배전후 1시간
주일저녁/핸드벨과이어	매월 1,3주 저녁	(주) 16:00-17:00	
주일저녁/크로마하프·만돌린	매월 4주 저녁	(주) 16:00-17:00	



충현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24 ●

보충계시(1)

(계 10:1-11)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충계시라고 부릅니다. 보충계시란 성경에 무엇이 부족해서 보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제일 핵심인 칠년 대환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장은 일곱 나팔재앙과 일곱 대접재앙 중간에 일어날 일들을 부연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1. 힘센 다른 천사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1,2절) 여기서 말하는 다른 천사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천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미의 천사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육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낸 그 천사입니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천사나 야곱과 씨름한 천사, 또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천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만난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천사란 피조물로서의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튜 헨리는 "힘센 다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재림할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얼굴은 해와 같다" 즉 영광이 해처럼 빛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그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배한다는 말씀입니다. 땅과 바다를 지배하시는 주님,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로 맹세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6절) 즉 앞으로 일어날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칠년 대 환난은 전반 3년 반과 후반 3년 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반 3년 반과 후반 3년 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반에는 심판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그 심판은 너무나 지독하고 힘든 것이어서 지상의 교회도 제대로 남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첫째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의 시간

을 단축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성도들에게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속히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2. 하나님의 비밀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7절)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처럼 이루어간다고 합니다. 일곱 인재앙 중 마지막 일곱번째 인을 개봉하자 그때에 일곱 나팔 재앙의 내용이 나오고, 일곱 나팔재앙 중 마지막 일곱번째 나팔재앙이 일어나자 그때에 일곱 대접재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서서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처럼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많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밖에도 비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재앙이 나오고 그 심판이 끝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등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복음서를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비밀은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3. 펴놓인 작은 책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책이 펴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2,8절). 이는 인봉된 책이라는 말과 대조가 됩니다. 전에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인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예수님이 펴신 다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진 다음 펴놓여진 것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또 우리들에게
많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읽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입에는 단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작은 책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5장)이라는 설도 있고, 성경책이라는 설도 있고, 신약성경이라는 설도 있고, 11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작은 책의 내용은 장차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이것은 후 삼년 반에 일어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요한에게 책을 먹으라고 했습니다(9절). 책을 먹는다는 말은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화한 표현입니다(겔 2:9-3:3).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고 그 후 그 말씀을 자기의 생활에 온전히 흡수시켜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먹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9절)? 입에는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들에게 많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읽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입에는 단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배에 들어가면 쏘입니다. 왜 쏘까요? 성경에는 심판에 관한 글들도 나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슬픔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9장까지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파멸, 후반 3년 반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많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20장에서 22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슬픔을 주고 어떤 때는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입에는 달고 배

에는 쓰다라고 한 것입니다.

4.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째는 말씀은 성도의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고는 안됩니다.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엡 6:10). 우리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중에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도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단종파들이 많은 요즘 성경을 가지고 이겨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사탄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말씀은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의 사명은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주의 종들만, 교역자들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모든 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언을 해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또 장차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없는 것을 예언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온 소식

케냐 /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아프리카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런데 어느날 저는 이 아이들과
예고도 작별의 인사도 없이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1994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되돌아 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 일들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많은 것들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심을 선교의 현장에서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이곳 아프리카의 곳곳에서는 지금도 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소말리아, 부룬디, 앙골라, 수단, 르완다 등 내전으로 말미암아 서로 죽이고, 기아와 병으로 죽는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소식들을 접하며 언제쯤 아프리카 전역에 평안의 소식이 들려올 것인가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프리카를 기억하실 때마다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 언어 훈련(1994년 1월 - 6월)

언어는 선교를 위해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현지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말과 진정한 마음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케냐는 영어가 공식어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여 저를 점점 낙심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했습니다. 거의 3개월을 밤낮으로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저의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제 자신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 성찬식 도중 하나님은 저에게 "너를 위해 몸버린 나를 기억하라 왜 두려워 하느냐 담대하라! 두려워말라!"라는 말씀으로 너무나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과 만나기 두려워하는 저에게 참으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학교가는 도중에 저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쉬는 시간에도 저를 일부러 찾아와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같은 언어학교에서 스와힐리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 친구와 계속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위로받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자신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 언어 공부 기간 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단기선교팀과 함께(7월-8월)

마사이(Massai) 마을에서 미국에서 온 한국 교포 1.5-2세 학생 20여명과 함께 약 7주간의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깊숙한 내지의 마사이 마을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성경학교와 보마

(Boma : 소동으로 지은 마사이 전통가옥)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보마방문을 위하여 최소한 왕복 2시간을 걸어야 했는데 아프리카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 여러 시간을 걷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짐을 들고 다닐 수 없어 점심은 썰을 바른 빵 두 조각이 고작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은 우지와 우갈리라는 현지 음식을 먹었는데 미국에서 편하게 자란 아이들에게 이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것은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외국인이라고는 저희를 처음 본 마을에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이틀 동안 진행한 것입니다. 성경이야기, 찬양, 게임 등을 30여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모두가 울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떠나면 누가 와서 이들을 돌볼 것이며, 이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며 누가 물을 주고 자라는 것을 돌봐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모두가 울었던 것입니다. 아직 학생인 자신들이 돌아오려면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몹시 마음 아파했던 것이지요. 이 일은 제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와 있는지 되짚어 보고 생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르완다(Rwanda) 난민과 함께(9월 - 11월)

제가 소속한 선교회인 아프리카선교회(EMA)가 한국의 이웃사랑회와 함께 르완다 난민을 위한 구제사역을 하게 되어 저는 자이레(Zaire)의 고마(Goma)에서 3개월을 지내었습니다. 고마는 우리나라의 제주도과 강원도가 섞인 것 같이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일하였던 곳은 루가리라는 자이레 마을인데, 이곳에 르완다 난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된 일들은 450여명의 난민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일과 700여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가전물을 세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루가리의 난민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 헤어진 옷, 더러운 몸과 손발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배와 등이 다 드러난 옷을 입고 비가 오는 가운데 떨면서 점심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제가 있었던 기간에는 거의 매일 비가 왔는데 저희도 한기를 느낄 정도로 추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주 3회 오전, 오후 두번씩 성경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찬양을 가르쳤습니다(정규 학과목은 루완다인 교사들이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발음이 어려운 저의 이름을 부르며 저를 따랐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아이들은 저를 더 많이 사랑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는 이 아이들과 예고도 작별의 인사도 없이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이레 군인들이 난민들을 마을에서 쫓아내는 바람에 아이들은 수업 도중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너무 급박하여 아이들이 다칠까봐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몇 분 전 제 앞에서 제 표정을 따라 자신의 표정을 바꿔가며, 이야기를 들던 한 아이가 집안살림을 들고 피신하면서 저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동안 참고 있던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루가리 아이들과 마지막 만남이었고, 아직도 그 당시 상황과 아이들을 생각할 때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좀 더 그

들에게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저의 가장 큰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기간 동안의 경험으로 인해 어린이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절실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며, 제 자신을 성숙시켰던 1994년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1995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마사이와 나이로비에 있는 저희 선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인 ICK(International Christian Kindergarten)에서 일하게 될 것인데, 이곳 ICK에서는 주로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실질적 방법과 프로그램에 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얻어진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어린이를 위한 교육분야에서 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여러 동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온 1995년 한해도 저를 위해 기도하여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이곳 현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제목

1. 장제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돕고 있는 ICK를 통하여 기독교 교육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지혜를 기쁨부어 주시도록
2. 현재의 필요들을 위하여(기동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 구입문제 등)
3. 언어의 진보를 위해

Kenya Nairobi에서 고은빈

◆ 우리 부서는 지금 ... ◆

영아부 교육을 아십니까? "충현교회는 영아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충현교회는 태어나서 2세까지의 아기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만을 가르치고자 매 주일 아침 8시 20분 교사 준비기도회로 영아부 문을 엽니다. 영아부는 예배드리기 전에 엄마, 아빠, 아기 그리고 선생님 모두가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송부르고 예쁜 울동을 하며 하나님께 찬송 드린답니다.

이제 태어난 지 1~2년된 아기들이 울동과 찬송을 부르고, 예쁜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은 정말 천

사 같습니다. 아기들의 바른 믿음을 심어주고자 주일 아침 일찍 영아부 문턱을 넘는 엄마, 아빠, 아기 한 가족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모는 아기에게 하나님 말씀과 참 지혜로 무장시키려 합니다. 처음 등록한 아기가 예배 분위기를 이해 못해 산만하게 2~3주 지내고 나면 예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말씀은 아기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도사님(정연희)께서 그

림, 울동, 찬송,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아기들에게는 물론 엄마, 아빠들도 영아부 교육에 만족합니다. 가정에서는 아기와 함께 그림교재로 하나님 말씀을 주고 받고 색칠 놀이도 하며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반공부시간에는 선생님, 엄마, 아빠, 아기와 대화로 시작해서 부모들 간에 친교와 필요한 생활의 지혜를 서로 교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기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바로 충현교회 영아부에서 40여명의 교사들이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매주일 오전 8시 30분, 10시 50분에 선교관 1층 영아부실에서 열립니다. 태어나서 0~2세까지의 아기면 환영합니다.

송혜경(영아부 교사)

토·막·소·식

- ◆ 청년2부는 19일(오늘) 오후 1시 30분 교육관 408호 청년2부실에서 요한·마리아 전도회 회장과 청년2부 부장, 지도교역자와의 간담회를 가지며 청년2부를 소개하고 서로의 대화를 가질 계획이다.
- ◆ 장년2부는 19일(오늘) 오후 1시 30분, 교육관 314호 장년2부실에서 반별친교회를 갖는다. 이 시간에는 복음성이 가수 진자매(구유진·구수진 집사)를 특별초청하여 특별순서를 갖는다. 장년2부는 50대 성도들의 모임이다.
- ◆ 새가정부는 2월 26일(주일) 반별찬송

학부모 특별교육

영아부·유아부·유치부

김창인 원로목사·구명신 전도사가

영아부·유아부·유치부는 3부 합동으로 오는 2월 22일(수) ~ 23일(목) 학부모 특별교육시간을 갖는다. 이날은 3개 부서가 겨울어린이 성경학교를 갖는 날로 함께 온 학부모들을 위해 특별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특강은 22일에 김창인 원로목사가, 23일에는 구명신 명예전도사가 담당하게 된다. 시간을 양일 모두 오전 11시 ~ 11시 40분, 장소는 선교관 1층 영아부실이다.

헌금위원 교육 실시

2월 21일(화), 저녁 6시 본당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거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자신을 헌신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자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배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교구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헌금위원 전문화를 위해 고정배치하여 실시하게 된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으로 드리는 순서 중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활을 드리는 표현인 헌금순서는 더욱 중요하고 그러므로 헌금위원 봉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준비된 헌금위원 봉사'의 필수요건은 실제적인 교육이기에 이번 교육을 통해 확실히 알고 봉사해야 할 것이다. 예배위원회에서는 본당에서(예배장소) 실질적 동작교육까지 철저히 교육할 계획이기에 헌금위원 봉사 대상자는 빠짐없이 참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참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화로 신성종 목사의 설교를, 교회안내도 함께

'이 시대의 좋은 소리'에서는 전화로 메시지 및 교회안내

700-4403

등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설교도 '이 시대의 좋은 소리'의 전화이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이 전화 서비스는 메시지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과 성시낭송, 신앙간증과 신앙예화, 교회소식 등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

하고 싶을 때 또 전도대상자에게 메시지를 들려주

고 싶을 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싶을 때 활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전화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00-4403 충현의 소리
- 700-4633 간증
- 700-4733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전화
- 700-4833 행복한 여성의 전화

가 부르기대회를 가지며 피차간의 교제와 일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지정곡은 찬송가 453장과 자유곡이 있다.

◆ 에바다부는 겨울수련회를 위한 교사교육을 2월 19일(오늘) 오후 3시 30분에 에바다부실에서 갖는다.

◆ 대학부는 강남구 일대의 복음화를 위한 전도운동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오후 7시 루터홀에서 열린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 충현장애아동 조기교육에서는 예능교육 수업을 보조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과목은 유아놀이, 미술, 체육인데 이 분야에 관심있는 분으로 가능하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1995년도 제1차 에바다부 수화교실 개강

에바다부에서는 금년도 제1차 수화교실을 개강한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에바다부 교회회실에 비치된 소정양식 의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간 12주 (3월 12일 ~ 5월 28일)
- 개설강좌 : 초급·중급·고급
- 강의시간 : 평일반 / 화, 목
저녁 7:30~9:00
주일반 / 오후 3:00~4:30

실업인전도회 모임

2월 21일(화), 충현기도원에서

실업인전도회(회장 남선우 장로)는 2월 월례회를 2월 21일(화) 충현기도원에서 모인다. 실업인전도회는 교회내 자영업자를 하는 사람들과 기업체에 나가는 사람들이 직장선교를 목적으로 모인 전도회이다.

실업인전도회는 금년도 목표중 하나로 회원 1,000명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 모양저 모양으로 애쓰고 있다.

이번 모임은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충현기도원으로 이동하여 기도회를 중심으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실업인전도회는 교육관 112호(구 내 교관 440번)를 전도회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교인들의 구인과 구직을 도와주고 있다.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 : 2월 19일(주일) 동일로교회 남전도회 헌신예배 설교
· 신성종 목사 :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지기를 원합니다.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림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받게 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며, 전국적인 가뭄을 해결시켜 주옵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여 주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입시생들을 축복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과 건강을 축복하소서.

이·런·일·은·고·침·시·다

음식(국수)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 제공하는 국수는 이제는 장안에서도 유명하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충현교회에서는 점심으로 국수를 준다지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늦게까지 봉사하는 사람을 위하여 제공하던 점심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강남으로 와서는 많은 사람이 멀리서부터 와서 하루종일 교회에서 지낼 수 밖에 없게 되자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점심을 제공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손쉽고 값싸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수를 메뉴로 택하게 되었다.

이 국수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충현교회 교인들에게는 이제는 매우 요긴한 것이 되었다. 매 주일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이모양 저모양으로 봉사하느라고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점심 한 때의 국수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우리 교회같이 큰 교회에서는 주일에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식당에서 국수를 먹으러가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인 것이다.

또한 주일날 4~5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국수 제공을 위해 각 교구 여전도회가 교대로 봉사를 하는 일도 아름다운 일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양에 대한 자율권을 주고 있는데 남기고 버리는 국수의 양이 꽤 많다는 것이다. 국수 사리는 물론 국물도 마찬가지이다. 각자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별 생각없이 많이 가져다가 남기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은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각 가정과 환경단체들이 음식찌꺼기 버리지 않는 운동을 곳

곳에서 벌이고 있고, 금년부터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펼치는 등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더욱 생각해야 할 일은 이런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들이 모든 성도들의 헌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이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국수나,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지 하나까지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소하고 작은 일 하나 하나에서부터 우리는 조심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식당에서 음식(국수)을 버리는 일· 이런 일은 고침시다!

교회직원 모집

충현교회 사무국에서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헌신할 신규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직종
가. 경비직(남) : 2명, 심신이 건강한 자
2. 제출서류
가. 세례증명서 1통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이력서 1통(사진첨부)
3. 기한
1995년 2월 25일 한
4. 제출처
사무국 총무과 552-8200(402)
김차철 집사

충현교회 사무국